

## 대학평의회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2. 01. 06(금)
의원정수 : 11명	출석의원 : 11명











1. 회의일시 : 2012. 01. 19.(목) 오후 5시
2. 회의장소 : 9동 2층 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 가. 출석의원 : 정현준, 김종기,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중, 이기육, 조현범, 한상덕, 김선국
  - 나. 불참의원 : 없음
4. 회의안건
  - 가. 대전보건대학 교명변경의 건
  - 나. 2011회계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
  - 다. 2012회계년도 본예산 자금예산서(안)

### 5. 회의내용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포하다. 간단하게 의원들의 안부를 여쭙고 회의를 시작하다

(의 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대학평의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대전보건대학 교명변경의 건과 제2안 2011회계년도 1차 추경예산(안)의 건, 그리고 제3안으로 2012회계년도 본예산 자금예산서(안)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대전보건대학 교명변경의 건에 대해 교무처장의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봉선)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안봉선입니다. 저희 대학 교명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부로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전문대학의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변경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자율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 서비스 분야의 전공증가 등 전문대학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대학도 교명변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번 대학의 교명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3일 현재 총 60개 전문대학이 교명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학에서는 2011. 11. 29 총학생회와 총동창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1. 12. 08 교수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번 평의회의 심의가 완료

< 참석평의원 간서명 >										
	김종기	정현준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되는 대로 법인에 정관변경을 요청하고 이후 이사회와 심의와 교과부의 승인을 거쳐 대전보건대학을 대전보건대학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의 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무처장의 설명에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대전보건대학에서 대학교로 변경이 되면 영문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봉선) 영문표기는 종전대로 "College"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작년 전문대학 총장협의회에서 대학의 교명변경과 관련하여 대학의 명칭변경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영문표기에 있어 "University"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University"를 사용하는 대학들도 "College"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오) 네 알겠습니다.

(의 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제청하다)

(의 장) 그러면 제1안 대전보건대학 교명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2011회계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문의 건입니다. 자료설명은 경영관리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과 김익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1회계년도 추경예산(안)과 2012회계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오)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예산관련 부분은 경영관리실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싶은데요.,,

(김익진) 실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설명을 드릴려고 하셨습니다만 갑작스런 회의 일정이 잡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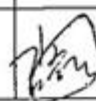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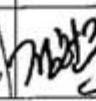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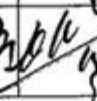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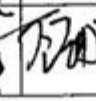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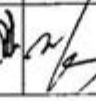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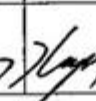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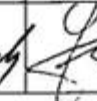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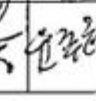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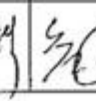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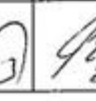
(이어 평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배포된 자료에 의거 2011회계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다)

(의 장) 방금 설명드린 2011회계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2012년 본 예산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미사용한 이월자금이 적립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익진) 그 부분은 2010년도 수련원 신축계획으로 자금예산(안)을 편성 했었고 2011회계년도 본 예산에서 기숙사와 강의행정동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대학특별규칙의 변경 등의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립을 해서 그 항목안에서 사용을 하면 될텐데, 특

< 참석평의원 간서명 >										
	김종기	정현준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획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익진) 건축기금이나 장학기금 이런 부분들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 사용을 하려면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기타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이유는 유동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하고 아니면 특별한 사업을 추진 할 때 적기에 사용을 하려고 부득이하게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비총괄회계를 보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익진) 이것은 저희가 교비회계 하나로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에 특례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기금회계는 기금적립, 발전기금, 장학기금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회계입니다. 등록금회계에서는 기금을 적립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강오) 그리고 조교인건비를 직원인건비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익진)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감사원 감사에서 대학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잘못 부담한 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상 정관에 정한 "조교"만 사학연금법의 사무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교과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정관상 행정조교(행정직군)로 변경하여 직원인건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강오) 19페이지 건축물관리비에서 기숙사 리모델링 예산 6억 2천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익진) 원래 계획은 2011년에 기숙사 리모델링, 2012학년도에 기숙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습지만 학기 중 소음문제가 있어 2012년 12월 기숙사 신축으로 변경되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강오) 공사는 언제 시작할 예정인가요?

(김익진) 강의행정동은 2011년 2월에 착공예정이고, 기숙사는 2012년 12월로 착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오) 그 바로 밑에 보면 기타시설공사 관리비가 4억 2천만원 증가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김익진) 이 부분은 동계방학 기간 중 공사계획으로 실험실습실, 기타시설 건축물에 대한 14건의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목에 남아 있던 금액을 합쳐 10억이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오) 그 다음에 정원수계경비를 보면 매년 2천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1차 추경 건축물관리비에서 목간전용 5천만원을 추가해 합계가 7천 2백만원으로

< 참석평의원 간서명 >										
	김종기	정현준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7hmk  
7hmk

로 증액이 되었는데, 정원수 제경비에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익진) 그 부분은 관리부서의 목간전용 변경 요청이 있어 변경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그리고 건설가계정에서 보면 본부행정신축비로 98억원을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셨는데 2011회계연도가 한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김익진) 지금 입찰공고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오) 지금 공사계약기간이라든지, 어느정도 세부일정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예산 98억만 세워놓고 과연 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기간이 촉박한데 과연 한달 보름만에 계약공고 내고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김익진) 기간이 조금 촉박하기는 하지만 2월경으로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있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강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학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설계하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교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계획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의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꼭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 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회계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2012회계년도 본예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의거 2011회계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다)











(의 장)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2011회계년도 추경예산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수입은 등록금수입이 20억 정도 감소가 했는데 교과부지원금, 예금이자, 임차보증금 등의 수입으로 추경대비 25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ERP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2억정도..., 제가 알기로는 ERP는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ERP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하게 되면 종합행정시스템이랑 묶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3년 전에 10억을 들여서 종합행정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더 무엇이 필요하기에 2억이란 돈을 들여 기존의 사업들을 다 중지시키면서까지 ERP를 해야되는지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부서니까요?

(김익진) 네, 종합정보와 연계를 해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형) 2억 정도면 다 할 수 있나요

(김익진) 2억은 아니고 총 25억에서 3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약금 집행

< 참석평의원 간서명 >										
	김종기	정현준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금액으로 2억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형) 그러면 2억이란 금액은 계약을 위해 확보한 금액이고 2012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2012년 예산에는 ERP에 관련한 25억이란 금액이 없던데요?

(김익진) 그 부분은 정보기술과의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본래 일반용역비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과 목간전용을 통해서 최대한 집행할 생각입니다.

(이 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심사를 위해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대학이 3년전에 10억을 들여 만든 종합행정망이 전체 마스터플랜의 일부분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ERP를 구축해 놓고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ERP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굳이 실패한 이 ERP시스템을 우리대학이 구축하려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익진) ERP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전자결재 시스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 사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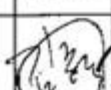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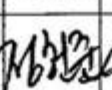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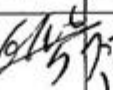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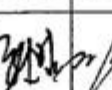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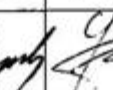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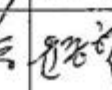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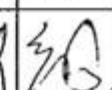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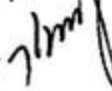
(이강오) 이런 문제는 구성원과의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서로가 서로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익진)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450억 정도의 자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갖고 진행을 해 주어야 할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었거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모든 교직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협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예산을 세워 놓고 취소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취소하고..., 결국 돈이 남아 이월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익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춘장대 수련원 건을 진행하면서 이월금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강의행정동 신축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올해까지 그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오)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대학의 마스터플랜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의행정동 신축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급한 건물은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은 이미 노후 건물이라 철거해야 합니다. 제가 학장제임

< 참석평의원 간서명 >										
	김종기	정현준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감사합니다



시 더 이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현준) 지금까지 이강오 교수님과 이형 교수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미흡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포자료의 증액부분의 설명을 듣고 자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증액부분의 관련내용의 내역을 설명하다)

(이강오)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이해는 가는데요, 결국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2012년까지만 있고 그 이후로는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결정될텐데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어서 항상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측에서 교육환경사업이나 학생, 교직원복지, 대학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발전기금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8천만원이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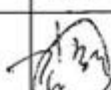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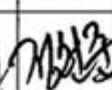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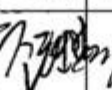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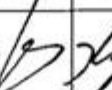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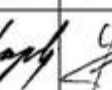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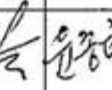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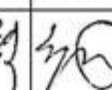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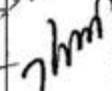
(유완중) 대외협력처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대학에서 발전기금을 내는 대학은 저희 대학밖에 없습니다. 재작년에 8천만원이 조금 넘었고, 2011년도 1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면 8천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종구) 보건계열쪽에서 실험실습을 많이 하는데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험실습비의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요?

(김익진) 올해는 10억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부서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이 만족을 해야만이 그 대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무원 인상분 3.5%를 반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원의 급여를 현실화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직원들이 감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 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오랜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년도 본예산 자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하십니까?

< 참석평의원 간서명 >									
김종기	정현준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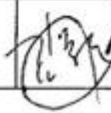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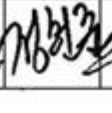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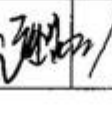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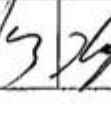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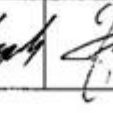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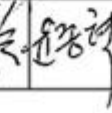



(의원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제청하다)

(이에 그 동안의 대학성과를 언급하고 앞으로도 평의원들의 많은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다)

(이어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하다. 19:15분 산회)

2012년 1월 19일

대전보건대학평의원회

< 참석평의원 간서명 >										
	김종기	정헌준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김종기  
정헌준